

福音新聞

THE GOSPEL NEWS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70年을 향한 標語

1. 教会에 革新을!
2. 社会에 變革을!
3. 世界에 所望을!



関西地方会宣教大会

関西地方会 宣教大会を開催

宣教七十周年を 맞이하여、十月十日、大阪女学院에서 記念式典이 開催되는데、이에 앞서、関西地方会主催의 宣教大会가、九月二十日(水) 関西地方会、信徒約百五十余名이 参加한 가운데、大阪教会에서 開催되었다。

宣教師(京都教会)의 司會로 金君植長老(武庫川教会)의 祈禱、鄭愛蘭婦人會前會長의 聖經朗誦(行伝一四四、一四七) 関西地方会連合聖歌隊의 記念讃歌가 있은 후、尹宗銀牧師(堺教会)의 「成長하는 教会의 基本姿勢」란 説教가 있었다. 尹宗銀牧師는 教会가 成長하지 못하는

우리 民族의 歴史가 無었으므로、主의 呼召에 있다고 지적하면서、宣教七十周年을 맞이하여、하나가 되어、成長하는 教会가 되자고 강조하였다。

이어서、田永福牧師(宣教師七十周年記念事務局)의 趣旨 文朗讀과、関西地方青年連合會 金正男會長의 決意文朗讀이 있었다. 米實으로 李相根牧師(大邱第一教会)의 祝辭가 있었다. 李牧師는 祝辭를 通하여、在日韓國教会는 本國教会、在美韓人教会같이 화려하지는 않지만、구원의 계속나감에 치하하며、이제 새 시대가 다가오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宣教師記念大会는、丁仁壽牧師의 祝辭로 끝마쳤다。

決意文

宣教師七十周年을 맞이한 宣 教大会에 즈음하여、過去七十

京都教会聖歌隊合宿

京都教会聖歌隊(隊長 金明連)は去る二十二、四日、京都教会で合宿研修會を開いた。講師に金境燦牧師(神戸教会)を

迎え、二十二日午後七時三十分開會礼拝をもつて合宿はじまった。

来る十月十日は宣教七十周年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그리스도

記念式 10月10日 於 大阪女学院



① 記念大会会場 ② 準備에 여념 없는 委員들

歴史的犠牲者도 追慕키로

이날 모임에는 總會長 金德成牧師、宣教師七十周年記念委員長 李仁夏牧師、同行委員長 金元治牧師、同事務局局長 田永福牧師、그리고 매킨도록

로 우리교회와 장자라도록물을 두고 가문 선배들의 고난은 이 무렵일수 없는것이다。 또한 지금도 靖國神社에 二万余柱에 達하는 우리동포들의 歴史的 犠牲者들이 있을것을 생각할때、宣教師七十周年席上에서 이들을 추모하는 추모곡들을 드립는 뜻깊은일이이다。

이 機會에 靖國神社에 있는 二万余柱의 억울한 犠牲者들을 우리의 손으로 기리 추모할 수 있는 方法을 강구해야한것이다。

이 紀念式典에서 教会生活 五十年을 紀念하는 表章이 決정되어 七명의 代表가 있어 이들을 表章을 決定하였 다。 曹華律長老(京都教会)李相龍名譽長老、朴光先、朴喜三

表彰者 六名決定

이 紀念式典에서 教会生活 五十年을 紀念하는 表章이 決정되어 七명의 代表가 있어 이들을 表章을 決定하였 다。 曹華律長老(京都教会)李相龍名譽長老、朴光先、朴喜三

이 紀念式典에서 表章을 贈送하기로 決定하였다。 新居濱伝道所(許達秀牧師)를 爲해 寄附되겠다。 新居濱伝道所는 우리교회내에 47 年을 記念하고 함께 祝賀하는 뜻에서、또한 이를 받들기 爲해 하나에 三百圓으로 各 教會에 配布하기로 決定하였다。 記念式順序는 다음과 같다。

主 題 我 희 망 이 신 예 수 그 리 스 도

日 時 一 九 七 八 年 十 月 十 日 (火)

午 後 二 時 一 六 時 三 十 分

(1) 記念式典 午 後 二 時 一 三 分 三 十 分

(2) 祝賀會 午 後 三 時 四 十五 分

(3) 茶 會 及 寫 真 展 午 後 五 時 十五 分 一 六 時 三 十 分

獻金은 新居濱伝道所에

記念式典에서 表章을 贈送하기로 決定하였다。 新居濱伝道所(許達秀牧師)를 爲해 寄附되겠다。 新居濱伝道所는 우리교회내에 47 年을 記念하고 함께 祝賀하는 뜻에서、또한 이를 받들기 爲해 하나에 三百圓으로 各 教會에 配布하기로 決定하였다。 記念式順序는 다음과 같다。

✽ 宣 教 7 0 周 年 記 念 ✽

1979年春期聖地イスラエルとヨーロッパの旅

★聖地イスラエル

エルサレム・エリコ・シケム・テベリア・カペナウム
カナ・ナザレ・テルアビブ・シナイ山

★ヨーロッパ

ローマ・パリ・ロンドン・アテネ

主催：福音新聞社

協力：(株)日本交通公社海外旅行虎の門支店

●旅行期間

1979年3月14日(水)～3月30日(金)(17日間)

●募集人員

約30名(定員になり次第締切ります)

●旅行費用

558,000円

●申込方法

申込金6万円を添えて、福音新聞社まで申込んで下さい。

●申込締切日

10月末日

●問い合わせ先

金君植牧師・姜榮一牧師

宣敎70周年總會에 즈음하여

永福

고 연구會(關東、中部、閔西
西南)를 開催, 婦人會의 質
的向上과 교류를 두텁게함은
婦人會뿐만 아니라 敎會發展
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
다.

局長金元治



伝道局은 宣敎七十年을
이하는 해에 宣敎七十年記
念特別集會를 地方會別로 開
催하고 있다. 中部地方會는 宣
敎七十年記念正初査經會를
關西・西南地方會는 宣敎大會
를 각기 開催하였다. 活動中
特히한것은 西南地方會가 實
施한 映画伝道를 위한 映写
技術講習會의 實施이다. 日本
의손이 韓國의 映畵를 導入
함에 따라 그熱은 높아가고 있
으며 伝道에 視聽覺을 매개
로함은 아주 유익한것이다.
四地方會마다 開拓伝道에 힘을
넣고 있다. 關東地方은 立川伝
道所, 中部地方은 浜松伝道所
關西地方은 姫路相生 그리스
고 四國에 新居浜伝道所, 西
南은 佐世保伝道所등이다. 四

局長金형植



教育局은 各種研修會를 通
하여 信徒訓練에 尽力해왔다
地方會別로 開催된 都諸職會
는 회적인 紐帶를 더욱 기
밀히하며 오늘날의 상황에 놓여
있는 該教會의 諸問題를 地
方會의 레벨에서 議論하면서
總會的인立場에까지 該教會가
생각하게되는 좋은 機會였다
고 본다. 敎役者・長老研修會는
물론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착되었다. 研修會內容에

局長金光洙



사회국은 昨年十一月에 日本 NCC와 韓国 NCC (事情上代表者不參加)와의 共催로 開催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다.

局長崔忠植



三、百餘個條의 差別을 하고 있는 行政府를 相對로 지금 是 教會뿐만 아니라 民族團體에서도 積極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教會에서 固은 多하고 있는 人格權裁判이나 國民年金, 國民金融庫融資問題, 그리고 京都韓國學園問題에서 未だ 있는 民族教育의 保持, 또는 就學通知, 兒童手當, 公營住宅入居問題 등이 산적되어 있는 가운데 各 지역에서 紛히지고 투쟁하는 일 에 社會局은 뒷받침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人權과 諸權利와 아울러 厚生問題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關東地方이 實施한 協同組合 關西地方이 하고 있는 共同組合 등을 總會的인 關점에서 발돋움 있도록 社會局은 힘써야 하겠다.

靑年局

局長 崔忠植

靑年局은 全協과 協力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소화시켰다. 全國靑年指導者研修會(一月) 韓國基督教靑年會全國總會에 外 韓日靑年會 協議會準備會

局長金炯卓



婦女局은 復局이 되어 二年
새이나 局独自の 活動보다
는 婦人會全國連合會의 事業
과 活動을 總合的으로 導는
대 파이프의 役割을 하고 있
다.

現在 婦人會의 中心メンバー
들은世代이며 封建時代는 이
 젊은世代를 잘 이끌어오고 있
으므로 總會보다 世代交替가
있았으며 따라서 活潑하게活
動을 展開하고있다.

점점 안을 국제화와동시에
밖과도 緊密한紐帶關係를 맺
고있다 世界婦人祈禱會에 參
加(関東) 韓日婦人會研究會를
婦人會全國連合會) 등 그리

局長金京秋



財政局이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宣敎自立基金이다. 敎役者 長老의 二千萬円基金도 完了되지 못하고 있으며 第二次로 全信徒에 依한 三年期間으로 一億円基金은 아직 채 도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宣敎自立基金確立을 서두는 것은 宣敎七十周을 맞이한 敎會가 언제까지나 海外에 依存하는 것이 아니라 自立한 在日韓國人의 日本에서 生活에 하나의 自立精神을 삼으려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對外的으로는 當국의 下落으로 언제까지나 海外에 依하는 宣敎인 事情도 있기는 하다.

總會의 自立을 期하기 위하여 宣敎負擔金의 引上, 機關紙運營을 通한 收入增加 그리고 總會運營費의 節約등의 案이나왔다.

이 案은 定期總會를 二年에 한 번씩 하자는 것이다. 中間年度는 夏期에 모이는 敎役者 長老研修會의 하루를 報告總會로 가지면 財政의 面에서 萬이 節約된다는 것이다.

물론 總會의 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지만 特別히 財政確保面에서 財政局이 다루어야 할 것은 札堂建築을 一年에 一敎會만 하자는 것이다. 總會에서 決議하였지만 이 決議는 年計 面에 있는 總會運營의 財政的인 面에서도 確立되어야 하겠다.

宅建千葉県知事登録(1)第3841号

三信商事株式会社

代表取締役 権 富 仁

不動産部 千葉県船橋市前原西1-25-18
電話 0474 (76) 6181 ~ 2 番
レストラン部 千葉県八千代市米本1448-1
電話 0474 (88) 5579・1613 番

ドライ専門

豊川クリーニング商会

代表者 崔 永 峻

大阪市大淀区本庄中通3-36
電話 06(372)5755

東和食品株式会社

代表取締役 **李 東 和**

東京都江東区永代2-11-3

